

■ 2018년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하반기 전통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하반기 전통분야
- 회의일시 : 2018. 10. 18(목) 10:00~13: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2018년 하반기 전통분야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지원 단체의 자격 요건 검토’, ‘지원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세밀한 점검’, ‘지원 요청 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하여 다행스럽게도 신청한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게 대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공연 단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

심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지원한 전통예술 관련 공연단체가 이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자격 요건 검토 과정을 통해 두 단체가 아쉽게도 제외되었다. 이미 공지가 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제외된 것이다. ‘중복 지원(수혜)’과 ‘미등록 공연장 대관’이라는 사유인데,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 신청서 작성에서 보다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다. 나름 기대를 하고 열심히 작성한 지원 신청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원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세밀한 점검을 하는 것이었다.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성’, ‘공연 주체의 역량’, ‘전통분야 공연예술의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이 그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전통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의 섬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모든 단체에게 지원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공연 기획 내용이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논쟁이나 논란으로까지 발전할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원 신청 단체들에게는 이후 유의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다. 작품의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지원 단체의 신청 금액이 적정한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의 경우, 이미 지원이 결정된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조정 작업이었다. 대관하려는 공연장의 대관료를 확인하고, 신청 금액과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 단체의 금액이 조정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이번 심의결과가 나왔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한다. 거의 대부분의 신청 단체들이 사업 취지에 적합해서 선정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동시에 신청 단체들 나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심의 과정에서 몇몇 작품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쟁점 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심의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예상보다 적은 신청 단체의 수였다. ‘왜 대관료 지원 신청을 하는 단체의 수가 적은 것일까?’, ‘지원금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일까?’, ‘대관료 지원의 경우 사실상 지원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 ‘홍보의 문제인가?’, ‘이러한 양상이 전통 관련 공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등의 원인에 대한 여러 추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아직 이 사업이 자기 목적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적어도 전통과 관련해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지향해야 것들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듯싶다.

애써 준비한 작품을 보다 적절한 장소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모든 공연예술인들이 바라는 바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열심히 준비만 하면 좋은 공간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기대를 대다수의 공연 단체가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지원이 없든 오늘도 전통예술 분야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전통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찬사 역시 덧붙인다.